

계모형 가정소설의 갈등 양상과 의미

이 승 복*

1

계모형 가정소설은 국문학 연구의 초기부터 많은 개설서들에서 가정소설의 하위유형의 하나로 구분되고 그 작품명들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장화홍련전>과 같은 작품을 제외하고 이들 작품은 상당 기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이들 작품이 공식화된 서사진행의 틀에 맞춰 계모와 전실자식의 갈등을 시종 선과 악의 평면적 대결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 이들 작품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그것대로 인정하면서 고전소설사의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구명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개별 작품론¹⁾과, 계모

* 박사과정 졸업

1) 8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작품론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재제(1981), 장화홍련전고(우리어문학회, 『한국문학론』, 일월서각).

임성래(1982), 어룡전의 구성고, 『연세어문학』, 14·15, 연세대.

김일렬(1984), 薔花紅蓮傳에 나타난 두 意味層, 『朝鮮朝小說의 構造와 意味』, 형설출판사).

朴英姬(1988), 楊豊傳에 나타난 父子對立 研究, 이화여대 석사논문.

우재제(1990), 薔花紅蓮傳(완암김진세선생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韓國古典小說作品論』, 집문당).

李憲洪(1993), 薔花紅蓮傳(화경고전문학연구회, 『古典小說研究』, 일지사).

형 가정소설의 성격과 그 시대적 변모의 양상과 이유를 구명하려는 연구들²⁾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 의해 계모형 가정소설에 대한 이해가 보다 심화될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작품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들을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면서 계모형 가정소설 일반의 성격과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계모형 가정소설에 속하는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황월선전>, <효열지>, <어룡전>, <양풍전>, <김취경전> 등을 대상으로 작품에 제시된 '계모갈등'의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성현공숙렬기>나 <화산기봉>과 같은 장편소설 작품들도 계모와 전실 자식의 갈등을 핵심 갈등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들 작품에 대한 검토는 추후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 계모형 가정소설로 분류되었던 작품들만을 대상으로 한다.³⁾

2) 申圭源(1981), 繼母型小說研究-繼母의 性格과 그 葛藤樣相을 中心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李元洙(1982), 가정소설의 갈등 구조와 그 의미, 『문학과 언어 연구』 9, 문학과 언어 연구회.

柳時順(1984), 계모형 소설에 나타난 갈등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이원수(1985), 계모형 소설유형의 형성과 변모, 『국어교육연구』 17, 경북대 국어교육연구회.

박태상(1988), 조선조 가정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金在用(1990), 繼母型 古小說의 詩學的 研究, 서강대 박사논문.

이원수(1991),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북대 박사논문.

김재용(1992), 대화 이론으로 본 계모형 고소설의 변모와 그 사회적 의미, 『배달말』 17, 배달학회.

3) <양풍전>의 경우는 엄밀하게 말해서 서모와 본처 자식의 갈등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계모갈등이라 하기 곤란하다. 또 부분적이거나 처첩갈등이 복합되어 있어 다른 계모형 소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모와 본처 자식의 갈등이 계모갈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단 이 작품을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2

계모와 전실 자식 사이의 갈등에 있어 모든 작품이 계모는 악인이고 전실 자식은 선인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갈등이 행위로 구체화되는 것은 모두 계모에 의해서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갈등의 모든 책임이 계모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품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계모가 전실 자식을 모해하기까지에는 남편과 전실 자식의 태도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갈등의 동기를 계모의 경우부터 살피기로 한다.

<장화홍련전>, <김취경전>, <황월선전> 등에서는 계모의 경제적 욕망이 갈등의 중요한 동기로 제시되어 있다. <장화홍련전>에서 계모는 처음부터 전실의 두 딸을 해하려 하다가 남편 배좌수가 장화의 혼인을 정하자 집안의 재물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본격적으로 모해를 시작한다.⁴⁾ 그리고 <김취경전>에서 계모 안씨는 전실 자녀 취경과 선애를 기출같이 사랑하였으나 자신이 아들을 낳은 후부터는 “취경 남뱃을 업시 호면 슈다가 산이 즈연 괴출계 전슈호리라”⁵⁾ 생각하고 취경을 죽이려 한다. 또한 <황월선전>의 계모 박씨는 인물이 절색일 뿐더러 덕행이 幽閑한 인물로 자신이 아들 월생을 낳았을 때에도 전실 자식 월선을 시기하거나 모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편 황어사가 살아 돌아올 기약이 없는 사신 길을 떠나면서 월선과 월생에게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分財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월선을 미워하고 모해한다.

이에 비해 <효열지>에서는 계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으로 가계를 계승

4) 長女年二十 次女年十八 時慶以時任座首在官府 定婚於巨族 通奇於後妻極備婚需 後妻性本貪(貪의 오기) 歸常欲殺二女 聞昏(婚의 오기) 奇 恐產業之見湯 欲爲謀害(至聖鐸, 薔花紅蓮傳의 一研究 - 朴仁壽作 漢文本을 中心으로-, 『국어교육』 13,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67, pp.18-20 부록). 경판본에는 이러한 진술이 없고 장화 자매의 원혼이 철산부사에게 신원을 요청할 때에 허씨가 경제적 욕망 때문에 자신들을 해쳤다고 말하는 부분만이 제시되어 있다.

5) <김취경전> (筆寫本 『古典小說全集』 14, 亞細亞文化社, 1980), p.12.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전실 자식을 모해한다.

잇씨 조씨 쓰지 계영으로 가스를 전하고져 호되 계영의 모양이 숙영에게 지나지 못하고 상서의 스랑함이 숙영에게 맞치지 못하며 흘리며 앙양지심이 잇스니 전가할 일이 만무한지라 죄를 심각호되 숙영을 읍시호니만 갖지 못하다 호고……⁶⁾

장상서의 재취 조씨는 자신이 아들 계영을 낳자 전실 자식인 숙영 대신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집안의 대를 잇게 할 생각으로 숙영을 죽일 계교를 꾸민다.

그러나 <어룡전>, <김인향전>, <양풍전> 등의 작품에서는 계모가 성격적 결함 때문에 전실 자식을 모해한다. <어룡전>의 강씨는 “얼굴이 비록 고으나 번성이 강포호야 평심 희코자 호는 스흘”⁷⁾으로 남편 어이관이 전실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보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 전실 자식을 모해하기 시작하며, <김인향전>의 정씨 역시 “결세 미인이나 성품이 간교하여 노복들도 다 정씨에게 꾸지람을 들을가 하여 자연 조흔 일이든지 초치 못한 일의 모다 보비위를 하여 주”⁸⁾는 인물이다. <양풍전>의 송씨 역시 경국지색으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정실 최씨와 그 자녀들을 모두 내치게 만든다.

이와 같이 계모가 전실 자녀를 미워하고 모해하는 동기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거나 가계를 계승하도록 하려는 욕망, 그리고 계모의 성격적 결함 등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갈등의 동기를 거의 전적으로 계모의 성격적 결함에서 찾는 것은 계모와 전실 자식 사이의 갈등이 지닌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외면한 것이다. 이는 작자의 문제의식이 약화 내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신이 낳은 자식으로 하여금 재산을 차지하게 한다거나 가계를 계승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는 전실 자식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여 한

6) <효열지> (규장각본), 8-9면.

7) <어룡전> (東國大學校 韓國學研究所編,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4, 亞細亞文化社, 1976), p.309.

8) <김인향전>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p.25.

집안의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적 욕망과 가계 계승에 대한 욕구 중 어느 것이 갈등의 주된 동기가 되는가 하는 것은 작품에 제시된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장화홍련전>의 경우 배좌수가 허씨를 재취한 것은 집안의 후사를 걱정했기 때문인데 허씨는 아들 삼형제를 연달아 낳았다. 이미 후사의 문제를 해결한 허씨로서는 가계 계승에 대한 욕구 대신 자신의 아들들에게 재산이 돌아가도록 할 욕망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황월선전>도 마찬가지이다. 전실 자식이 딸 하나뿐인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 박씨로서는 가계를 계승할 자신의 아들이 전실의 딸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불만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김취경전>에서 딸과 아들을 낳은 안씨는 자신의 아들로 가계를 계승하려고 하는 대신 자신의 자식들에게 재산을 전해주고 싶은 욕망을 품는다.

이처럼 갈등의 동기가 재산에 대한 욕망인가 가계 계승에 대한 욕구인가 하는 것이 작품의 상황에 따라 구분되기는 하지만 <김취경전>의 경우에서도 보듯 계모형 가정소설 가운데 가계 계승에 대한 욕구보다 경제적 욕망이 갈등의 동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그것은 계모형 가정소설이 계모갈등을 어떠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형상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계모의 경제적 욕망이 갈등의 직접적 동기가 되는 데에는 계모가 남의 집에 재취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계모 자신의 사정이 작용하고 있다. <장화홍련전>에서 모든 음모가 발각된 후 허씨는 철산부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쇼첩의 몸이 더디거족으로 문중이 쇠잔하고 가시 탕파하던 초 좌췌 간청
 호므로 후체되오니 전실의 낭네 잇소오되 그 행동거지 심히 아름다옵기의
 (친?)죽식갓치 양혹하여 이십의 이르러는 저의 형식 점점 불측하여 빅 말의
 한 말도 듯지 아니하고……9)

여기에서 허씨가 몰락한 양반가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배좌수는 '좌수'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대부가 아닌 향반이면서 가산

9) <장화홍련전> (경판 18장본, 金東旭編, 『古小說板刻本全集』 2), p.586.

이 유여한 인물이다. 곧 허씨는 몰락한 사대부가의 후예로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재산이 풍족한 향반 배좌수의 후처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김취경전>도 마찬가지이다. 계모 안씨의 집안은 명문거족이나 가세가 빈한하여 富家에 구혼하던 중 “가세 유여하고 요부지명이 일세에 진동”¹⁰⁾하는 김형국이 구혼하여 안씨를 천금으로 맞아온 것이다. 그러나 김형국에 대해서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다는 사실만이 제시될 뿐이고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김형국은 어떤 벼슬을 지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학문에 뜻을 두지도 않았다. 실재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불분명하지만 김형국이 후일 두류산에서 춘경추수하면서 우양계돈을 치며 사는 것을 보면 그의 가문이 결코 명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김형국은 안씨에 비해 신분적으로는 한미하나 부유한 집안의 인물이고 안씨는 신분적으로는 김형국보다 우월하나 빈한한 가문 출신이다. 따라서 안씨가 김형국의 재취가 된 것 역시 전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신분 변동의 와중에서 물질적인 가치가 신분적 가치에 우선하기도 하였던 조선 후기의 실상을 일정 수준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계모의 집안은 양반가이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그보다 못한 부자집에 후처로 들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서 계모가 재산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전실 자식을 모해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富를 좇아 후처가 된 계모의 입장에서 재산은, 후처라는 자신의 처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재산을 전실 자식이 독점하거나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그녀로서는 참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한 가계 계승에 대한 욕구보다 경제적 욕망이 중요시되는 데에는 이러한 계모 개인의 사정외에 사건이 전개되는 가문이 명문 사대부거나 벌열이 아니라는 사실도 관계가 있다. 물론 <장화홍련전>의 배좌수가 후사를 위해 재취를 했듯이 가계의 계승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러한 명문 벌열가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를 잇는다는 것이 단순히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산소를 보전하는 것 이상으로 家風과 家格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 때 가문의 계승은 명문이라고 자처하는 집안일수록 더욱 큰 관

10) <김취경전>, p.10.

심사였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명문 사대부가가 아니면서 부유한, 이들 작품 속에 제시된 가문에서는 가계 계승의 욕구보다는 경제적 욕망이 보다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갈등의 동기가 경제적 욕망이든 그것이 불분명하든 간에 계모형 가정소설의 대부분은 서민적인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황월선전>의 황어사는 팔도어사로 각도 각읍을 8년간이나 순행하였는데 탐관들의 불평으로 모함을 받아 삭탈관직되어 고향에 돌아와 농업에 힘쓴다. 하지만 이후 월생과 월선이 박씨에게서 별씨를 받아 농사를 직접 짓는 등 작품에 제시된 황어사 집안의 모습은 서민의 그것에 가깝다. <김인향전>의 경우에도 계모갈등은 김좌수라는 향반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어룡전>의 어이관 역시 비록 산림학사라는 이름을 듣기는 하지만 그는 농업에 힘써 재산을 모은 사람이다. <양풍전>의 양태백은 명문거족으로 벼슬이 삼공에까지 이른 사람이지만 그는 가산을 탕진하고 노복도 없는 상태에서 눈이 침침하여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로까지 전락한다. 이런 사실에서 계모형 가정소설은 서민적인 가정을 배경으로 주로 재산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 작품의 담당층이 주로 서민층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모의 욕망이 행동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가장인 남편과 전실 자식의 태도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장화홍련전>의 경우 허씨를 재취로 맞아들인 배좌수는 전실 자식인 장화와 홍련만을 애중한다. 그는 “미양 녀으로 더부러 강부인을 생각하며 일시라도 낭녀를 못보면 삼추갓치 녀겨 나갓다 드리오면 문져 낭의 방의 드러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¹¹⁾리면서 “너희 심규의 잇서 어미 그리워호물 노뵈 미양 슬허호노라”¹²⁾ 하며 애련해 마지 않는다. 나아가 생모를 생각하며 울고 있는 장화 자매를 보자 그것이 허씨의 구박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고 “츄후 다시 이런 연괴 이스면 처치호여 너희 맴을 편케호리라”¹³⁾라며 위로한다. 이처럼 전실 자식만을 애증하는 배좌수의 태도는 필연적으로 허씨의 시기심을 자극하게 되

11) <장화홍련전>, pp.579-580.

12) <장화홍련전>, p.580.

13) 상 동.

는데 배좌수는 허씨의 시기심이 자신과 장화 자매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허씨만을 꾸짖는다.

우리 분더 빈곤히 지너터니 전처의 죄물이 만흐므로 지금 유족한디 그대의 먹는 서시 다 전처의 기물이라 그 은혜를 생각하여 서 유인등을 심히 구지 말나¹⁴⁾

전실의 은혜를 생각하여 전실 자식을 구박하지 말라는 모욕이 허씨로 하여금 장화 자매를 시기하고 모해하는 마음울 갖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곧 허씨를, 후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이기는 했지만 전실 자식들을 박대할지 몰라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필요악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배좌수의 태도가 허씨의 욕망을 행동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장화 자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장화 자매는 계모인 허씨를 어머니로 여기고 받들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들 방안에 들어앉아 생모를 생각하고 눈물만 흘린다. 장화 자매 역시 허씨를 명목상의 어머니 이상으로 인식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김취경전>의 계모 안씨는 “옥모화용이 세상에 생혀나고 고서와 네기를 박남하여 모를 거시 업고 곁하여 녀도에 신기험과 인스에 명민하여 너강외특하고 말을 경술리 안니하여 가중 상한인이 칭찬하물 마지 안니¹⁵⁾” 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상한인이 다 경복하고 취경 남매를 기출같이 사랑하여 칭찬하는 소리가 원근에 자자하였다. 그러나 안씨가 딸 설애울 낳자 김형국은 전실 자식인 선애가 더 뛰어나 세속 여자의 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선애를 위로한다. 이 때문에 안씨는 취경 남매를 해할 생각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은 후 이것이 재산을 기출들에게만 물려 주려는 경제적인 욕망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황월선전>에서도 전실 딸과 가계를 이어갈 자신의 아들을 똑같이 분재한다는 것이 박씨에게는 남편이 전실 딸을 편애하는 것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이처럼 남편의, 전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동정, 후처에 대한 냉대, 그리고 전실 자식의 계모에 대한 태도 등에서 비롯되는 소외감이 계모

14) 상 동.

15) <김취경전>, p.10.

의 성품과 상승 작용을 하여 그녀의 욕망을 부추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작품에 이러한 남편과 전실 자식의 태도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장화홍련전>을 모방한 <김인향전>과 같은 작품에서는 계모 정씨가 소외감을 느낄 만한, 남편이나 전실 자식의 태도나 행동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계모갈등의 원인을 전적으로 계모의 성품적 결함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장화홍련전>에서 보이던 문제 의식과 현실 감각이 둔화되고 단순히 계모는 악하다는 관습적 통념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자고로 계모와 전실 자식 사이에 외합지 못하와 가엾의 불의지변이 루루 하오니 남군은 명심하옵소서 첩이 부탁하는 말삼을 불망하소서 세상의 어린 자식을 두고 죽는 사람이 나뿐이오잇가 자고로 효자가 화를 만나기 쉬운 거시오 절개 있는 신하가 성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거시라 수 임금의 출탄대효로되 계모의 화를 당하시였고 또 운맹기도 효자로되 계모의 화를 당하였스니 우리 인향 남매 지극한 효성이로되 필경 큰 화를 당할지라 만일 나 죽은 후의 그런 화를 당하면 엇의가 엇지하며 뉘라서 거두어 주리요 죽은 혼백이라도 참아 눈을 감지 못하리라¹⁶⁾

위는 김좌수의 전실 왕씨가 죽으면서 좌수에게 한 유언이다. 비록 전실의 말일지라도 여기에서 이 작품이, 계모는 무조건 악하고 전실 자식은 무조건 선하다는 통념에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계모갈등은 유형화된 과정을 밟아 진행된다. <장화홍련전>과 같이 전실 자식이 딸인 경우 계모는, 외간남자와 통정하여 낙태까지 했다는 누명을 씌워 전실 자식을 죽이든가 축출하며, 전실 자식이 아들인 경우에도 역시 누명을 씌워 축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실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모에 의해 전실 자식은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만다. 그러나 모든

16) <김인향전>, p.24.

전실 자식이 계모의 모해를 감내하지만은 않는다. 전실 자식은 효라는 윤리 규범의 권화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명천은 이 자원을 삼피쇼셔 장혜의 팔지 기박호와 늑세의 모친을 여회우고 형제 서로 의지호와 …… 슬년 후 계모를 어드미 성품이 불측하여 박디심흔지라 섯운 간장과 슬픈 모음을 이기지 못호오는 나지면 부친을 바라고 밥이면 망모를 심각하며 형제 서로 손을 잡아 장장하일과 긴긴 추야를 장우단탄으로 지니웁더니 궁혹극악한 계모의 독슈를 버셔는지 못호여 오늘날 이 물의 섯녀 죽소오니 이 장화의 천만 인미호를 천지일월은 질정호쇼셔¹⁷⁾

위는 <장화홍련전>에서 장화가 못에 빠져 죽기 전에 장쇠 앞에서 자탄한 말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허씨가 장화 자매를 모해하기까지에는 가장인 배좌수와 장화 자매에게서 느끼는 소외감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장화는 자신이 망모를 생각하며 장우단탄으로 세월을 보낸 것이 모두 계모의 박대 때문이라고 하였다. 장화는 계모의 모해에 대해 직접 항거를 하지는 않지만 위의 말에서 장화가 계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장화에게 있어 허씨는 이제 명목상의 어머니도 아니었던 것이다.

<김인향전>에서는 한 걸음 나아가 전실 자식이 계모에 대해 직접 항거하면서 계모를 힐난한다. 계모의 모해로 인향의 몸이 임신한 것과 같이 되자 인향은 죽을 병이 들었다며 계모가 심사가 고약하고 자기 소생 하나 남은 후부터는 구박이 자심하다며 망모를 부르며 통곡한다. 그리고 부친 김좌수가 내쳐 연못에 넣어 죽이려 할 때 인향은 계모를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아모조록 부모가 갈아치시는 대로 일시도 놀지 아니하고 뒤방의 갖쳐 잇서 부모의 령을 한 번도 어기미 업삽고 조곰도 특죄하미 읍겨날 소녀를 이와 갖치 박대하고 모함함이 심할지라도 한 번도 아바남을 뵈웁고 고한 배 업사운데 이와 갖치 몃슬 말노 모함하여 죽이러 하니 이다지도 박결하웁잇가 이제 나올 세워 닛코 칼노 배울 가르시면 자연 알 거시오니 내 사지를 찌져 가로상에 거러두면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이 내 죄가 잇고 업는 것슬 알 것시오 소녀의 소원대로 하여 주옵시면 죽은 혼이라도 원이 업게삽나이다

17) <장화홍련전>, pp.581-582.

모는 나 죽은 후의 아바님 되시고 만수무강하시오!¹⁸⁾

자기는 계모의 학대를 부친에게 고한 적이 없는데 계모는 어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느냐며 계모를 힐난하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나서는 '계모'라고 지칭하면서 비아냥거린다. 인향 남매가 장화 자매처럼 계모 정씨로 하여금 전실 자식을 학대하거나 모해하도록 하는 어떤 동기를 제공한 적은 없다. 그러나 정씨의 모해에 대해 위와 같이 항거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정씨를 어머니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효열지>에 있어서는 명목상의 모자 관계까지도 완전히 벗어나고 계모와 전실 자식은 치열한 대결의 양상을 보여준다. 계모 조씨는 시비 채운의 남편과 기녀 초매를 동원하여 숙영을 죽이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숙영을 무고하여 부자간을 이간한다. 또 과거길을 떠난 숙영을 자객을 보내 죽이려 하기도 하고, 숙영의 혼인을 방해하다가 숙영을 치독하려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숙영은 조씨의 모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하려고만 하지는 않는다. 숙영은 자신을 죽이려던 자객들에게서 그것이 조씨가 시킨 일이라는 것을 듣자 “옛사람이 일으되 세상의 어려운 거슨 계모라 하더니 과연 헛말이 아니로다”¹⁹⁾라고 하며 자객들을 꾸짖어 보낸다. 그리고 자신을 치독하려는 조씨의 계교를 알고는 “잇씨를 타 조씨의 간악한 일을 드러너고져 하여”²⁰⁾ 조씨의 시비 채운을 신문하나 채운이 입을 열지 않고 죽자 숙영은 “조씨의 죄를 드러 못 발킴을 분이 여기고 한”²¹⁾한다. 숙영은 직접 부친에게 조씨가 자객을 보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일과 치독하려 했던 일을 고하기도 한다. 이처럼 조씨와 숙영의 대결은 명목상의 모자 관계를 벗어나 치열하게 전개된다. 대결이 치열해지면서 숙영에게 있어 조씨는, 부친을 미혹하여 자신을 해치고 집안을 망치려는 적대자에 불과하였고, 조씨 역시 자신이 숙영을 모해하려 했던 애초의 동기마저 망각하고 외간남자와 사통하여 욕정을 충족시키고 남편을 귀양보내는 등 한 집안을 완전히 파괴하고 만다.

18) <김인향전>, pp.35-36.

19) <효열지>, pp.57-58.

20) <효열지>, p.106.

21) 상 동.

그러나 이와 달리 <어룡전>이나 <김취경전>에서 전실 자식은 계모의 모해에 대해 아무런 불평 없이 그것을 감수한다. <어룡전>에서 월과 용남매는 계모 강씨의 모해에 의해 집에서 축출되지만 그들은 어떤 항거나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후일 강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월은 슬피 통곡하면서 강씨가 낳은 아우 재룡을 데려다 기른다. 서술자는 이를 두고 “듯고 보는 지 뉘 안니 그 효성과 우의를 칭찬하리오 활달한 장부라도 오히려 일을 심각하려든 하물며 규중여주로서 전스는 조금도 쾌락치 안니하고 이갓치 슬허하니 그 통달함과 효성은 진실노 스품으로 하야 금 행복하고 본밭을네라”²²⁾라고 평한다. <김취경전>에서도 전실 자식은 계모의 모해를 한 마디의 불평도 없이 감수한다. 취경 남매는 계모에게 누명을 썼을 때에도 원망은커녕 오히려 사죄를 할 뿐이며 집에서 쫓겨날 때에도 실성 체육하면서 “춤아 부모 슬허를 써는지 못하는 정이 간절하여 머뭇거”²³⁾린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계모 안씨가 다른 작품의 계모들과는 달리 극악하기만 한 악인으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비록 그 목숨은 끈치 못하느 세상에 용신치 못하게 하여 부끄지정불 끈케 하고 돌지는 김공에 지물이 제에게 간섭기 못하게 하고 세지는 가중에 있지 못하게 하면 너 침식이 편하련이와 실노 그 적당한 계교를 심각지 못하노라²⁴⁾

이는 안씨가 자신의 친족인 윤도익을 불러 취경 남매를 해할 계교를 물으면서 한 말이다. 차마 전실 자식들을 죽일 수는 없고 다만 전실 자식들과 남편과의 부자지의를 끊음으로써 재물이 자기 기술에게 돌아가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씨와 취경 남매는 최소한 명목상의 모자 관계를 시종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갈등의 진행 과정에서 계모와 전실 자식은 명목상의 모자 관계나마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그것을 벗어던지고 서로 대립하는 경우로

22) <어룡전>, p.360.

23) <김취경전>, p.43.

24) <김취경전>, pp.26-27.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최소한의 모자 관계를 유지하는 전자의 경우는 계모갈등과, 전실 자식의 효라는 도덕적 당위의 관계를 문제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계모와 전실 자식의 갈등이 전실 자식의 지극한 효에 의해 해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어느 것이라도 도덕적 당위의 당대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물질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에 우선하는 모습을 통해 도덕적 규범에 의한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이들 작품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갈등의 진행 과정에서 계모와 전실 자식의 모자 관계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 간에 대부분의 작품들은 전실 자식의 고난을 상당히 감상적인 필치로 그려나가고 있다. <장화홍련전>에서는 이복 동생 장쇠에 의해 장화가 연못으로 끌려가 죽는 장면이 감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장화홍련전>을 모방한 <김인향전>에서는 인향을 연못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인향의 친오라비 인형으로 바뀔으로써 이들 남매의 기구한 운명이 더욱 비극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들의 대화와 행동, 그리고 서술자의 목소리는 감상적인 분위기를 한층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황월선전>에서는 월선이 계모의 모함을 받아 통곡하고 자탄하는 모습이 반복 제시되어 있으며, <어룡전>에서도 계모에 의해 쫓겨나는 어린 남매의 모습이 상당히 감상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작품에서 계모의 박대에 고통받는 전실 자식의 모습을 길고 자세하게 감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독자와 전실 자식과의 심리적 거리가 상당히 축소되어 독자는 전실 자식을 동정하면서 한편으로는 계모에 대한 중요감을 갖게 된다.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의 환상에 몰입하여 계모갈등이 지닌 본질적인 문제는 덮어두고 계모는 악인, 전실 자식은 선인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계모갈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이런 점에서 이들 작품은 통속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는 것이다.

4

계모와 전실 자식의 갈등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가장의 태도이다. 계모갈등이 단순히 계모와 전실 자식의 선악 대결이 아니라 가장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모두가 관여하는 가족갈등인 이상 가장의 태도를 검토하는 것은 계모갈등의 의미를 파악하고 계모형 가정소설의 성격을 구명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본고의 대상이 된 작품들에 등장하는 가장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가정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나아가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재취한 부인을 홀대하고 전실 자식만을 애중함으로써 계모와 전실 자식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반대로 후처에게 침혹하여 직접 전실 자식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장화홍련전>의 배좌수는 전자에 해당한다. 허씨를 재취로 맞아들인 배좌수는 전실 자식인 장화와 홍련만을 애중하여 허씨의 시기심과 소외감을 자극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한 집안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배좌수의 장화 자매에 대한 사랑이 완벽한 것도 아니었다. 배좌수는 장화가 낙태하였다는 허씨의 말을 듣자 여태까지의 태도를 돌변하여 “그더의 진중한 덕을 너 이미 아느니 썰니 가르치면 저를 지금 처치호리라”²⁵⁾라고 한다. 그러고는 허씨 말의 진위 여부를 가리려 하지 않고 대뜸 장화를 못에 넣어 죽게 만든다. 그러나 장화를 연못으로 끌고 갔던 장쇠가 범에게 물려 돌아오자 장화가 애매하게 죽은 줄 깨닫고 후회하고 한탄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장화의 억울한 죽음을 해명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홍련마저 죽게 만든다. 나중에 철산부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고 허씨가 처형을 당한 다음 배좌수는 가내사를 주장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다시 삼취를 한다. 결국 배좌수는 가문의 안정

25) <장화홍련전>, p.580.

을 스스로 파괴하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다음에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무분별하고 우유부단한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가장의 모습은 다른 작품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김인향전>의 김좌수는, 재취 부인 정씨의 말을 듣고 전실 자식인 인향의 정절을 의심한다. 그러나 결백을 주장하는 인향의 말을 듣고는 인향이 애매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만 발악하는 정씨를 보고는 '겁을 내어' 인향을 호령하여 연못에 넣어 죽게 만든다. 그는 인향이 죽자 실성통곡하고 인향의 아우 인함마저 죽자 자신도 병들어 죽고 만다. <황월선전>의 황어사 역시 박씨의 말만 듣고 월선을 못에 넣어 죽이려 하고, 월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월선을 찾으려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 그러면서도 황어사는 박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나중에 박씨가 죽자 통곡을 하는 인물이다. <어룡전>의 어이관 역시 자신을 치욕하려 했다면 전실 자식 월을 모함하는 강씨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친정으로 가겠다는 강씨의 위세에 눌려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우물쭈물 넘어간다.

이에 비해 <김취경전>, <양풍전>, <효열지> 등에 등장하는 가장은 처음부터 후처에게 미혹되어 전실 자식에게 고난을 가한다. <김취경전>의 김형국은 안씨를 절대적으로 신봉하여 취경 남매에 대한 안씨의 모함을 그대로 믿는다. 그는 취경을 매질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죽이려 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집에서 내치고 만다. 후일 평안도 어사에 의해 안씨의 죄상이 밝혀졌을 때 김형국은 “분기를 참지 못하여 안시를 칩혀스느니 안마음이 굶지 못한 고로 … 형여 안시 본가로 갈라 의심하”²⁶⁾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 나중에 안씨가 도망한 뒤에는 가세가 기울어 품을 팔아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만다. <양풍전>의 양태백은 처음부터 “스람되오미 온순공검하나 마음이 나약하여 일을 당하미 결단이 업”²⁷⁾은 인물로 소개된다. 그는 정실 최씨가 천거한 첩 송씨에 침혹하여 세상 만사를 다 뿌리치고 일시를 떠나지 않다가 송씨의 말을 좇아 최씨와, 최씨가 낳은 삼남매를 함께 내친다. 최씨가 죽은 후 집을 찾아 온 삼남매를 다시 내치려 하다

26) <김취경전>, pp.166-167.

27) <양풍전> (경판 24장본, 김동욱편, 『고소설판각본전집』 2), p.227.

가 송씨의 말을 따라 받아들이지만 결국 삼남매가 송씨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내치고 만다. 나중에 그는 송씨의 말만 듣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송씨의 구박을 받자 지난 일을 후회하게 된다. 또 <효열지>의 장상서 역시 재취 조씨에 미혹되어 점차 숙영을 미워하다가 마침내는 숙영을 집에서 내치고 만다. 이후 장상서는 '아황 여영의 절개와 태임 태사의 덕을 접했다'고 믿었던 조씨에 의해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간다.

이와 같이 계모형 가정소설의 가장들은 계모와 전실 자식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매개하여 가정의 안정을 스스로 파괴하는 무분별하고 우유부단한 인물들이다. 가장들 이와 같이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은 계모갈등에 대한 가장의 책임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서술자는 '용렬한', '미련한' 등의 수식어를 가장의 앞에 붙여 서술하기도 하는데 <효열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비의 목소리를 통해 가장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퍼붓는다.

노야의 오날 근심하시논 거시 모도 조취하시논 일이 아니시닛가 …… 앓가 쥬림 안으로 말하여 노야를 회교져 하라 하던 거시 곳 조시라 노야가 친이 보시고 엇지 안부를 못논잇가 …… 조씨가 본더 얼굴 고으나 마음이 불칙하며 말이 공손하나 형실이 음난하야 아람다운 턴도와 간스흔 말노 노야를 요혹하디 하디 노야가 일편 정괴를 모도 썩져 사랑하시논 정만 두고 썩닷지 못하시니 웃지 조취하시논 근심이 아니오닛가 …… 이런 일은 노야가 알으시논 거시어늘 심각하디 못하디 하시니 곳 처를 미혹하신 마음이 이제도 썩닷지 못하시논잇가 …… 노야 도로혀 착흔 겨집이라 하시니 미혹하신 마음이 이제도 썩닷지 못하신잇가 …… 노야가 간악하고 흉악한 조녀의 말을 미더하여 효도하고 공순흔 사람을 너친 후의 또 무어시 부족하여 의심하시기를 마지 아니하시니 미혹하신 마음이 이제도 썩닷지 못하신잇가 …… 노야의 스람 아르시논 명감이 잠깐 어두워 그리신 듯 호오이다²⁸⁾

계모가 들어온 가정은 가장에게는 하나의 혈연 집단일 수 있지만 계모와 그 소생, 그리고 전실 자식에게는 혈연을 달리하는 두 개의 집단이 명분적으로 모자, 형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집단의 조화와 융화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당연히 가장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가장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28) <효열지>, pp.193-199.

것이 아니고 가장의 분별력 있는 판단과 세심한 배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작품은 가장, 권위에 의지하여 횡포를 일삼거나 무분별하고 우유부단하여 갈등을 방비하거나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키는 인물로 형상화하면서 가장의 책임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무능한 가장의 형상화는 이들 작품이 가문의 내적 결속 내지는 외적 확장, 그리고 가문의 계승과 같은 가문의식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문의식은 가장과 아들의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이 무능하고 분별력이 부족하며 그러면서도 가장으로서의 횡포를 자행하도록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 작품이 결코 가문의 차원에서 계모와 전실 자식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장이 자신의 무능과 횡포를 후회하여 자신에 의해 출저된 전실 자식과 화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된 상태에서 부자관계는 가문의 중심축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작품에서 가장들은 후사를 위해서나 혹은 가간사를 주관할 주부의 필요성 때문에 재취를 한다. 그러나 후사의 필요는 단지 재취의 동기에 불과할 뿐 그것이 작품의 진행 과정에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장화홍련전>과 같은 작품에서 허씨 소생의 장쇠는 장화를 연못으로 끌고 가 죽게 하고 아무 죄가 없는, 허씨의 다른 아들과 함께 처형되고 만다. 곧 가문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것이 이 작품에서는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계모형 가정소설은 계모갈등을 가문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계모갈등이 한 가정을 어떻게 철저히 파괴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앞에서 계모와 전실 자식은 명목상의 모자 관계에서 시작하여 마침내는 그마저 벗어던지고 대립하기도 하지만 작품에 따라서는 최소한 명목상의 모자 관계를 시종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았다. 이것은 당연히 갈등의 해결 방식과 관련된다. <장화홍련전>의 경우 계모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장화 자매의 원혼이 칠산부사에게 신원을 요청하고, 칠산부사는 허씨를 능지처참하고 허씨 소생의 아들들까지도 죽여 사건을 마무리한다. 마찬가지로 <김인향전>에서도 안주군수가 사건의 실상을 밝힌 다음 정씨를 큰 톱으로 썰어서 죽여 인향 자매의 원을 풀어준다. <황월선전>의 경우에는 고을 관장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실의 딸이 고을 관장의 부인이 되어 계모를 마음껏 조롱하여 지난 한을 푼다.

선이 들어가며 왈 거모님은 회포 기리든 선이 여겨 왓소 하며 모친은 엇지 반기지 안이하신난잇가 죽은 선이 다시 스르 왓소은이 중간 이러나소서 혼 준 술로 어만임 은혜을 갑고 도라가리다 한디 박씨 따지 못하여 이러나며 왈 니 너을 너여 보니고 마암이 살난하여 골수의 병이 되었던이 너을 본니 꿈갓 도다 선이 더답지 안이하고 술을 부어 들고 박씨을 권하여 왈 계모님은 날을 심각하여 며물목 주던 은혜은이 자부시요 박씨 낫빰치 변하하며 바다 먹거날 쏘 한 존을 부어 들고 이 존은 나을 어도은 방의 뉘미고 흥악한 일을 호려 홀 썩이든 은혜은니 주부소서 박씨 쏘 바다 먹거날 쏘 혼 존을 부어 들고 이난 나을 낙타하였다 호고 모홀호든 은혜은니 주부소서 하니 박씨 으러 으러 여러 잔을 먹으나 술이 더취하여 염치을 모로거날 쏘 한 존을 부어 들고 이거날 오늘날 이별주은이 주부소서 하니 박씨 박거날 선이 이러나며 호직 호고 왈 거모님은 너니 무양호음소서 나난 지성으로 가운이 일후의 반가이 보옵서 호고 나운이 시비등과 귀경하난 스름이 모다 웃고 박씨을 염치 업다 하더라²⁹⁾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모의 모해를 하나 하나 들춰가며 벌주를 먹여 계

29) <황월선전>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51, 오성사, 1986), pp.699-700.

모를 회통한다는 것은 부모 자식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해결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계모와 전실 자식의 관계를 효라는 도덕적 당위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보편적 도덕률의 입장에서 파악한 것이다. 나중에 계모가 벼락을 맞아 징치되는 것으로 설정한 데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양풍전>과 <효열지>에서는 전실 자식인 풍과 숙영이 외적을 물리치거나 반란군을 진압하는 영웅적 활약을 통해 높은 지위에 오른 다음 계모를 징치한다. <양풍전>에서는 풍이 천자의 허락을 얻어 송씨를 처형하며, <효열지>에서는 숙영의 부친 장상서가 조씨를 처형하려는 순간 벼락을 맞아 조씨가 타죽는다. <어룡전>의 경우는 <양풍전>이나 <효열지>와 마찬가지로 어룡이 흉노의 침입을 물리치는 영웅적 활약을 통해 좌승상의 지위에 올라 부친과 누이를 만난다. 그러나 계모 강씨는 이미 친정에서 병사하였기 때문에 계모가 낳은 아우 재룡을 데려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한다. 어룡 남매는 계모의 박해를 묵묵히 감수하는 등 계모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계모에 대한 징치가 필요없지만 계모가 이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병사하도록 한 데에서 이 작품 역시 계모갈등을 선악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시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계모에 대한 징치는 고을 관장의 개입이나 전실 자식의 영웅적 활약을 통한 지위 상승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김취경전>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 흥년이 들어 새로 파견된 어사 서운택이 김형국 집안의 계모갈등에 대해 듣고 진상을 밝히려 하자, 계모 안씨는 권력층을 통해 서운택을 파면하고 새로운 어사를 파견하게 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 하지만 백성들의 항의로 다시 서운택이 어사가 되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자 안씨는 남북을 하고 도망친다. 한편 무술을 연마하던 취경은 초월세계의 도움으로 갑주와 말을 얻어 백제의 침공을 물리친 후, 집에 가서 부자 상봉하고 친정에 머물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던 안씨를 찾아 가정의 안정을 회복한다. 이처럼 <김취경전>에서는 계모갈등의 진상은 고을 관장에 의해 밝혀지고, 가정의 안정은 영웅적 활약을 통해 명예와 지위를 획득한 전실 자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안씨는 명목상일지라도 모자 관계를 파괴하지 않았고 취경 남매도 안씨에 대한 효를

지켰기 때문에 안씨가 개과하여 가정의 화합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계모갈등이 고을 관장이나, 전실 자식의 영웅적 활약에 의한 명예와 지위의 획득에 의해 해결된다는 것은 계모갈등이 가정 내부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만은 해결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질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에 우선하여 발생한 갈등은 이미 효와 자애라는 도덕적 당위의 강조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모자 관계까지도 벗어버린 대립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가족의 화합을 이룩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에 따라 갈등은 고을 관장이나 높은 지위의 획득과 같은 가정외적인 요소의 힘을 빌어 갈등의 일차적 책임자인 계모를 징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만 것이다.

6

이상으로 계모형 가정소설로 분류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계모갈등은 대체로 계모의 경제적 욕망이 주된 동기가 되어 발생하며, 계모와 전실 자식은 명목상의 모자 관계를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그마저 벗어버리고 팽팽한 대립으로 치달다가 고을 관장이나 전실 자식의 지위 상승이라는 가정외적인 요소에 힘입어 계모가 징치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은 무분별하고 우유부단하여 갈등을 야기·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계모형 가정소설은 계모의 婚入을 통해 빚어진, 물질적 가치와 가족윤리라는 도덕적 가치의 대립을 문제삼으면서 물질적 가치에 의해 한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장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회의와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장화홍련전>이 창작된 18세기 중엽은 물론 그 이후에도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표면적으로는 완강히 지속되고 있었지만 점차 가장의 권위와 봉건적 가족윤리의 강조만으로는 가족내부의 문제를 잠재우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상층 사대부들이 담당층이었던 장편소설에서는 대체로 도덕적 당위의 철저한 준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읽을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상황을 작품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들의 담당층이 서민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본고의 논의는 좀 더 세밀한 작품 분석과, 계모갈등을 핵심적 갈등으로 하고 있는 장편소설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